

# 선거관련법·각종제도 개편 논의

## 조계종 종헌·종법개정특위 14일 첫 회의

### 총무원장 선거기간·선거인단 수 보완 종헌-종법-종령 상충부분 논의할 듯 '특위' 종단구조·제도 안정에 주력

늘리거나 줄이는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원을 대폭 늘릴 경우 과열양상을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인원을 줄일 경우 '대표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장단점이 맞물려 있다. 선거인단 선출 절차와 자격기준도 어떤 식으로든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회의원들 사이에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떤 형태를 띠느냐가 관건이다. 사전 선거운동이나 금권, 타락 선거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 법령 마련도 필수적이다.

중앙종회의원 선거법에서는 직능대표 선출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술'이 불가피

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상태다. 선원, 율원, 강원, 복지, 사회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능직 종회의원은 현재까지 종회 각 계과 간에 '나뉘먹기식'으로 배분돼 왔다.

●제도 및 종단 구조 개편 관련법  
우선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구니부'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법장스님의 공언대로 총무원장이 가지고 있는 말사 주지 임명권을 본사 주지에게 이양하는 문제도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총무원 부서 통폐합이 가시화될 경우에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제·개정 시급 종헌·종법  
성보박물관과 법인 관리에 필요한 종법

조항 신설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불교유물 및 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종단 차원의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현재 이 두 분

야에 대한 법 조항은 전무하다. 복지관련 사업과 관련한 종법 마련도 필수적이다. 복지 분야의 사업과 활동이 계속 늘고 있지만 종단 차원의 관리 감독이 미약하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종헌과 종법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나, 종헌-종법-종령 체계에서 어긋나 있는 부분들도 논의될 가능성이 많다.

●사면  
특위에서 사면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법장스님이 부처님 오신날 사면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데 이어 멸빈자에 대한 선별적 사면 가능성도 시사한 만큼,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중앙종회에서 멸빈자를 포함한 사면 여부가 높아지면 종헌 개정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현 종헌에서 멸빈자의 사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될 경우에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멸빈자 사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명우 기자 mwuhan@buddhapia.com

## 서암대중사 행사

### 봉암사를 최고 선수행 도량으로

3월 29일 원직에 든 조계종 특별선원 회양산 봉암사 조실 서암당(西庵堂) 흥근(興根)대중사는 전날 봉암사 수좌 1백여명을 모아놓고 "그 노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다고 해라"는 말을 남겼다. 서암당 흥근 대중사는 1917년 10월 8일 경북 안동군 녹전면 구송리 독립운동가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스님은 1932년 16세에 우연히 산에 올라갔다가 스님이 되고 싶어 3년 동안 절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조건을 내걸고 예전 서암사에서 화산스님을 은사로, 37년 21세에 운달산 김통사에서 금오대선사로부터 비구계와 보살계를 수지, 서암(西庵)이란 법호를 받았다. 스님은 비구계를 받은 38년에 일본대

승이고 육도승이고 그런 거 없다."고 하였다. 스님은 47년부터 74년까지 금강산 마하연과 사불산 대승사·계룡산 나한굴·덕숭산 정혜사·가야산 해인사·지리산 칠불암·오대산 상원사·속리산 북천암·청화산 원적사·금정산 범어사·동화사 내원암·태백산 각화사·도봉산 천축사·회양산 봉암사 등지에서 수행했다. 스님은 75년 59세에 제 10대 조계종 총무원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2개월만에 총무원장직을 버리고, 문경 봉암사로 들어가 78년 수행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반인의 산문(山門)출입을 통제, 봉암사를 한국 최고의 선수행

### 신문배달로 고학... 평생 '산승' 풍도 일관

### 용맹정진·명료한 법문·검약의 생활

종교과에 입학, 신문배달과 집꾼 등을 하며 고학했으나 폐결핵 말기 판정을 받고 걸려 2년 만에 귀국했다. 40년부터 김통사 중앙선원을 비롯 전국 선원을 돌며 '생사의 근본도리'를 화두로 용맹정진에만 몰두했다. 스님은 이 시기 금오스님을 비롯해 만공 효봉 한암 스님 등을 모시고 정진을 계속, 수좌들의 귀감이 됐다. 45년 해방 후 미 군정이 친일파를 등용한 데 크게 실망한 스님은 징병·징용에서 돌아온 청년들에게 보급자리를 마련해주는 불교청년운동을 펴기도 했다. 특히 46년 계룡산 나한굴에 들어가면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살아서 이 굴에서 나가지 않으리라' 결심하시고 살이 타지고 뼈가 드러나는 고행으로 선정삼매 속에서 청정백일을 보듯이 밝게 보고 역경계(逆境界)와 순경계(順境界)에 자유함을 체험했다. 그러나 한 수좌가 이 때의 오도송(悟道頌)을 여주자 "오도

도량으로 다져 놓았다. 79년 회양산 봉암사 조실에 추대되어 퇴락한 봉암사의 가람을 중창하고 승풍을 바로잡아 조계종 종립 선원으로서 기틀을 다진 분이 바로 서암 스님이었다. 용맹정진과 높은 지혜에서 우러나는 명료한 법문, 검약의 생활로 인해 스님의 주변에는 늘 수좌들이 모여들었다. 스님은 91년 75세에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에 취임하고, 93년 77세에 제 8대 조계종 종정으로 추대됐다. 스님은 94년 서의현 총무원장이 3선 연임을 고집하면서 일어난 종단 분구 때 종정에서 물러났다. 스님은 이후 경북 봉화군 태백산 자락에 '무위정사'라는 토굴을 짓고 약 7년간 은둔생활을 했다. 2001년 봉암사 수행승들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여 조실로 들어가 2003년 3월 29일 오전 7시 40분에 연화실에서 87세를 일기로 열반에 들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 민주본·평불협 북한사찰단청 공동추진

### '단청불사추진위'로 창구 일원화

#### 총재 법장, 추진위원장 법타·학담 스님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정면, 이하 민주본)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 이하 평불협)가 북한사찰 단청불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평불협 회장 법타스님과 민주본 상임집행위원장 학담스님은 1일 조계종 총무원 4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동추진 기구인 '대한불교조계종 북한사찰 단청불사추진위원회(이하 단청불사추진위)'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단청불사추진위 총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추진위원장에는 법타스님과 학담스님이 임명됐다. 이에 따라 단청불사 사업 주관은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과 남측 단청불사추진위로 단일화된다. 사업 대상은 북한 59개 사찰 및 민족문화재로서, 2004년까지 총 60톤 분량의 단청 안료를 나눠 지원한다. 단청불사추진위와 조불련이 시범 사찰인 평양 법운암에 대해 공동 불사를 하며 기술을 전수해 주면, 다른 사찰들은 조불련이 독자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단청불사추진위는 4월 중 통일부에 교류협력사업 승인 신청과 단청 재료 및 도구 1차분을 지원하고, 5월에는 시범작업단 방북 및 인식을 할 계획이다. 또한 6월에는 금강산에서 단청을 주제로 한 학술토론회 및 전시



◇1일 조계종 총무원 4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타스님(사진 가운데)이 추진위 향후 일정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박재환 기자  
회와 시범작업 회향법회를 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 법타·학담스님은 "단청불사 공동 추진으로 그 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돼 온 대북교류 사업의 방식을 한 차원 높였다"며 "향후 불교계의 대북교류가 각 단체별 위상과 특성에 맞게 독자적으로 활동하되, 사안별로 필요에 따라 공동 추진기구를 구성해 통일적인 조직형태로 추진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 조계종 스님 총 2만2천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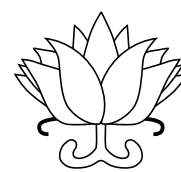
비구 4,349명·비구니 4,382명  
구족계 받지 않은 스님 의외로 많아

예비승을 포함해 현재 조계종 승적을 가진 스님은 모두 22,2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무원 총무부가 3월말 열린 제157회 중앙종회에 제출한 '승려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구 4,349명, 비구니 4,382명, 사미 6,159명, 사미니 7,33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비구와 비구니보다 사미와 사미니 수가 훨씬 많은 것은 단일계단이 시행된 81년 이전 출가자들의 경우 구족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승적상 아직까지 사미와 사미니로 남아 있는 스님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총무부는 설명했다. 예비승 제도가 도입된 95년 이후 출가해 현재 종단 기본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인을 포함한 전체 사미, 사미니 수는 1천여명과 1천4백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미니가 사미보다 많은 이유는 행사교육원을 마치고 곧바로 강원이나 풍곡대, 중앙승가대 등 중단 기본교육기관에 입교할 수 있는 사미와는 달리, 일부 사미니 강원의 경우 입학시험을 치르는 등 자격시험을 엄격히 함으로써 행사교육원을 마쳐더라도 1년 이상 공부해 해야 함에 따라 그 기간만큼 인원이 적체된 데 따른 것이다. 한 해 평균 출가자는 400~450명 가량이며, 남녀 비율은 거의 비슷한 편이다. 한명우 기자 mwuhan@buddhapia.com

### 새롭고 정갈한 음식

## 삼청동 고조선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한식 일품요리로 건강을 지킵시다

사전 전화예약 : 02)732-7355

삼청동 우리은행 뒤편(우리은행 주차장 이용)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 의례의 결정판! 통일법요집

대한불교조계종 통일법요집 편찬위원회에서 종단의 역량을 기울여 9년간 진행해 온 불교의식 통일화 노력의 결실입니다.

종단 내 의식에 밝은 스님들이 집필·회편하셨고, 강백 큰스님들께서 감수하셨습니다.

기존의 법요집에 비해 의식 집전이 편리하도록 활자를 키우고 편집을 새롭게 했습니다.

- **일용의식** | 1. 도량식 2. 중송 3. 대웅전 예경 4. 각단예불
- **상용의식** | 1. 불공 2. 천도제·49제 3. 시식·영반
- **제반의식** | 1. 점안의식 2. 이운 3. 방생 4. 다비·시다림 5. 육불의식 6. 통알의식 7. 소심경
- **전문의를식** | 1. 상주권공 2. 시왕각배·대례왕공 3. 영산작법
- **법 회** | 1. 정기법회 2. 일반법회 및 기도 3. 특별법회
- **평생·명절의례** | 1. 평생의례 2. 명절의례

통일법요집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값30,000원

2003년  
전면 수정판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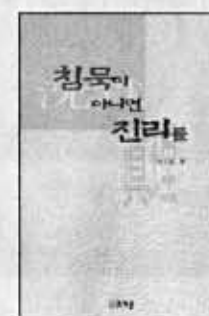
**불교입문**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편저 / 302쪽 / 값5,000원  
30만 명이 선택한 불자 기초교양 필독서!  
불교 기초교리는 물론 사찰에서의 예절, 수행 등 구체적인 실행 실천 방법 수록



**불교교리**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편저 / 334쪽 / 값7,000원  
불교 입문 과정을 마친 독자를 대상으로 불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중급 교재



**불교상담**  
김 병기연 / 300쪽 / 값10,000원  
서구의 상담이론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접근한 심리상담 이야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제 상담에 활용한 예화가 풍부하게 수록된 불교상담의 개론서!



**침묵이 아니면 진리를**  
김 도형 / 294쪽 / 값8,000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도형스님이 40년 동안 포교일선에서 삶에 대해 사유하고 통찰하여 차곡차곡 쌓인 지혜의 참모습을 풀어낸 불교 이야기